

데스크 시국



김대성 제2사회부장

우리 민족의 주식(主食)으로, 귀히대귀한 쌀이 몰락하고 있다. 고기 소비가 쌀을 추월하면서 어느덧 주식이라는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어 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풍년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계속되는 정책 실패와 소비 감소 탓에 나라로 떨어진 '나라(벼)' 가격은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게 하고 있다.

쌀의 몰락이 부른 '풍년의 저주'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얼마 전 쌀의 부가까지 창출을 위해 즉석밥 '땅겉쌀 쌀밥'을 출시했다는 해남 육천농협 소식은 반갑기가 그지없다. 윤치영 해남 육천농협 조합장은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해 가공식품 육성을 통한 새로운 쌀 소비처 창출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땅겉쌀 쌀밥'은 쌀의 명품화를 위해 개발된 전남의 대표 쌀 품종인 '새창무'로 밥을 짓는다.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인 '새창무'는 밥을 지으면 찰기가 들고 윤기가 흐르며 쫄득한 식감까지, 쌀 자체로 맛있어서 밥쌀용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쌀양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즉석밥을 비롯한 쌀 가공식품 소비량은 늘고 있다. 실제

나라에 빠진 쌀 산업, 죽 쓰지 않으려면...

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사업체부문(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의 쌀소비는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부문에서 제품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81만 7122t으로 전년 대비 12만 5700t(18.2%)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맥류 제조업(26.2%), 주정 제조업(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9.8%) 순으로 소비량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냉동김밥과 각종 볶음밥류 등이 인기를 끌면서 쌀 가공식품 수출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7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한 7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쌀가공식품, 김, 라면이 높은 증가율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건강식과 한류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쌀 가공식품 수출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쌀과 면, 과자 등 쌀 가공식품 생산에 용이한 가루 쌀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 역시 이 같은 점을 반영, 올해 4억 원을 투입해 쌀 유통·쌀 빵 등 쌀 가공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10월에는 '전남 쌀을 이용한 전국 쌀 요리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도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지역 업체 50곳을 선정해 가루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14곳), 제품과 패키지 지원(1곳) 등을 진행 중이다. 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연계해 가루 쌀 활용 레시피 개발, 제빵 경진대회 등 가루 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또 쌀이 탄수화물 덩어리로 비판의 원인이자 오히려

를 극복하기 위해 고급화·차별화 전략으로 변신을 추진 중이다. 건강·다이어트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영양 및 기능 성분을 강화한 고급품종·친환경·기능성 쌀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수요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적 쌀 재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친환경 벼 인종 면적의 60%가 전남으로, 이중 유기농 벼 면적은 전국 면적의 7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남 쌀은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친환경 쌀 부문에서 올해까지 18년 연속 선정됐다.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답

쌀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쌀의 몰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농민과 농협 등 관련 기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미 굳어진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애써 재배한 쌀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농민과 시장 안정 조치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정부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정부도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지만 앞선 것이다.

농업인들이 쌀의 부가까지 창출을 위해 즉석밥을 만들고,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쌀 가공식품 생산에 용이한 가루 쌀 활성화에 힘쓰는 것이 반가운 이유다. 지역 농협에서도 '아침 밥 먹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남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나라에 빠진 쌀을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은펜칼럼



박행순 전남대 명예교수 전 내팔 카트만두대 객원교수

정년퇴임한 대학에서 '삶과 지적 대화'라는 교양과목의 한 쪽지를 맡게 되었다. 다양한 학교에서 온 수강생의 절대다수는 1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가 줄어드는 것이 나이가 어릴수록 '삶'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업평가서에 학생들은 여러 전공분야 교수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시킨 강의와 소그룹 멘토링을 장점으로 꼽았다.

십여 년 만에 강단에 섰으나 여전히 십대 후반, 이십대의 학생들을 대하니 시간을 되돌린 듯 감회가 새로웠다. 과거의 전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지만 팔십 가까이 살아온 연륜이 있기에 '삶'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 우선, 학생들과 소통하고 동시에 80여 명의 출석을 체크하기 위하여 생각해낸 묘안이 쪽지대화였다. 또 삶과 지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모델로 달걀을 사용하였다.

첫 학기에는 맥반석 구운 달걀을 주면서 달걀을 '삶'이라 생각하고 관찰을 통하여 삶의 일부라도 이해하자

삶과 지적 대화

고 제안하였다. 생달걀을 주면 관리하기 불편하고 삶은 달걀보다는 구운 달걀이 더 맛있으니까 나름 인심을 쓴 것이었다. 하지만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구운 달걀 같은 삶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소수일 뿐이며 또 모두에게 똑같은 삶의 여건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일괄 구운 달걀이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학기에는 삶은 달걀과 날달걀을 각각 비닐 지퍼백에 넣고 하나씩 가져가게 하였다. 다음은 몇몇 학생들의 달걀 관찰과 연결시킨 삶에 대한 쪽지대화이다.

내가 집은 것은 날달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흔들었을 때 내용물이 움직이는 느낌, 껍질 속에서 부딪치면서 헐떡거림 같은 것을 느꼈다. 더 많이 흔들었더니 고요해지는 것이 마치 달걀이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것 같다. 삶에서도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적응하면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을 느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세상에 환멸을 느끼던 중 수업시간에 달걀을 받았다. 마리를 굶적이며 강의실을 나서는데 곧바로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너의 삶이다. 너의 삶을 남에게 쥐버리거나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했다. 이후 만난 나의 소중한 친구는 그 달걀이 무엇이나 못더니 자신이 말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고민 끝에 그에게 내 삶을 잠시 말겠다. 늦은 저녁, 작별인사를 하며 그는 내게 달걀을 돌려주는데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고작 달걀이지만 그에게 맡긴 나의 삶은 온전히 돌려받는 기분이었다. 버려졌던 내 삶을 소중히 감싸준 친구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삶이 고통이라며 비판했지만 이렇듯 내가 맞이할 평안이 있기에 나는 삶을 버리지 않았다.

그날 달걀을 하나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달걀이니 깨질까봐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없어 하루 종일 달걀을 들고 다니는 것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삶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 자취방에 가서 저녁 식사에 달걀프라이를 해서 반찬 한 가지가 늘었다. 삶의 일부를 남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삶이 주는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이 끝나고 바로 전공수업이 있어서 달걀을 소중히 쥔 채 강의실로 향했다. 달걀을 본 친구들은 삶은 달걀인지 날달걀인지 궁금해 하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재미있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한 친구가 삶은 달걀이라 확인(?)하고 깨뜨렸는데 날달걀이었다. 한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절망 속에서 확실한 교훈을 얻었다. 이렇듯 잘못된 판단에 버려지는 달걀처럼 내 삶도 잘못된 생각 하나에 깨질 수 있다. 한 번뿐인 내 삶을 신중하고 소중하게 살아야겠다.

달걀과 삶을 연결시키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 진지함에 감동하며 새롭게 나의 과거와 현재의 삶,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가르치면서 배운다. 한창 젊은 나이에 삶과 지적 대화를 하는 내 학생들 이 참 부럽다.

공원은 공원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를 심각하게 위협 또는 방해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공원 중심부 통행은 일부 제한하여 통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용봉동-매곡동-운암동을 아우르는 배달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시간과의 싸움으로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난폭 곡예운전과 굉음, 과속운전은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에게 안전위협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있는 많은 애견인들이 애완견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생활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좋은 일도 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 담배를 즐기는 애연가와 비흡연자의 상호권리 존중은 이제 사회에 많이 정착되어 있듯이 애견인들도 비애견인들을 위해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애견으로 인한 사고 소식을 듣게 된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개 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애완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애견에 공원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애견인들이 개를 동반하여 공원을 활보하면서 공원의 거의 모든 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대형견을 입마개도 없이 목줄이 느슨한 상태로 '우리 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 하지만 상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비애견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애완견 동반 산책이 마치 사회 봉사활동

동으로 착각하는 인상을 받기도 하는데 차라리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애완견 공원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한다.

넷째, 공원 안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좋은 운동 시설물이 있으며 시민들의 활동도 매우 높다. 그리고 공원 내 모든 곳은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특히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분들의 보행 중 흡연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 공원은 흡연 금지 구역이라는 더욱 철저한 안내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완료 기간이 2개월 정도 지연 된 것 같지만 공원 어디에도 공사 마무리 일정 안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9월 7일이면 제15회 광주국제비엔날레라는 큰 행사가 이곳에서 개막한다. 공원 관계자들은 공원의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을 심효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쾌적하고 아름답게 치러지도록 함과 동시에 좋은 공원의 면모를 알릴 수 있길 바란다. 광주의 관문인 무지개 다리 위에 오로라가 떠오르듯 여왕광주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또 한번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늘 많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모든 문제들의 좋은 해결책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의 처지와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만든다고 철학자 아렌트가 말하지 않았다.

社說

국회 '광주의 날' 지방분권 모델 이정표 되길

광주시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국회에서 '광주의 날'이란 행사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은 광주가 처음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3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과는 분산 에너지 도시 조성, 돌봄 모델 구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도시형 특화 모델 발굴 등을 함께 하기로 했고 조국혁신당과는 지방특화형 주거정책 구축 등 4개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하기로 했다.

정책 협약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로 이들 당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тім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광주 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4명 지역 의원들에게 광주 명예시민증을 준 것인데 광주 민간 통합공항 이전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광주의 날' 행사는 무엇보다도 신선한 아이디어로 광주시가 타 지자체에 앞서 정책을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발 경쟁을 벌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견전현 견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다음 통합돌봄 등 광주시의 대표적인 혁신정책을 전국화 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다만 광주시의 기대처럼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광주를 위해 돕겠다'는 정당들의 말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협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중증 외상 전문병원 없어 타 지역 전전해서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중증화상이나 신체 절단 사고 환자를 다룰 전문병원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지역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이 있고, 화상을 치료하거나 수지접합을 하는 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중증 외상 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중증 환자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등 19개 분야에 대해 지정하는 병원이다. 질환별로는 관절·뇌혈관·대장·항문·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주산기(분만전후 진료)·수지접합·한방중증·한방척추 등이고 진료 과목별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이 있다. 광주·전남에는 알코올·관절·척추·한방척추·주산기·안과 전문병원은 있으나 중증 외상인 화상이나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한 곳도 없다.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가 응급 이송한 화상환자는 연평균 230명에 달하며, 신체 절단환자는 17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십 명이 수술과 치료를 위해 타 지역 전문병원을 찾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치료 중 습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에도 가벼운 화상이나 손가락 절단 등과 같은 비교적 증상이 약한 환자를 감당할 병원들이 있으나, 다리 절단이나 전신 화상과 같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문병원은 없는 상황이다.

화상 전문병원과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여러 명의 외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많은 수의 병상을 보유해야 해 설립이 어렵다. 이 때문에 화상과 수지접합 병원은 대구·부산·청주·수원 등 수요를 감안해 각각 5곳만이 있을 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수·광양 산단의 산재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해 호남지역의 환자를 담당할 화상이나 수지접합 전문병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 남아(男兒)의 용기와 기상을 전 세계에 과시해 기쁘니다."

1980년 8월 11일, 해남 출신 조오련 선수가 50km 거리의 대한해협 도영(渡泳)에 사상 최초로 성공한 후 밝힌 소감이다. 이날 0시 5분 부산 다대포를 출발해 오후 1시 21분 대마도 북단 등대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13시간 16분이 소요됐다. 같은 달 23일 광주 금남로 카 페레이드에 이어 도청앞 광장에서 '조오련 선수 개선 도민 환영대회'가 성대하게 열려 5·18민중항쟁의 아픔이 채가시지 않은 시

1978년 선수생활을 마감한 그는 끊임 없는 도전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한해협 횡단에 이어 영국-프랑스간 도버해협(32km) 횡단(1982년), 울릉도~독도간 횡단(2005년)에 성공했다. 특히 2008년 7월에는 독도를 33바퀴 헤엄쳐 도는 '독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2009년 8월,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을 기념해 재도전을 준비하던 그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조오련 기념관

고(故) 조오련(1952-2009) 선수를 기리는 '조오련 기념관'이 최근 해남군 계곡면 범곡리에 문을 열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수영의 역사를 새롭게 쓴 그는 마땅히 기억해야 할 수영스타이자 '스포츠 영웅'이다. 이번 기념관 개관을 통해 그의 불굴의 도전정신 또한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타계한 해 12월 모교인 서울 양정고 교정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그가 자주했던 어록이 새겨져 있다.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작하는 순간 도전이 된다."/송기웅 예방부장 song@

기고



박남국 하남공단 광신스크랩 이사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를 품은 광주비엔날레공원은 비엔날레 국제전시장과 여왕광주를 채워주는 시립미술관, 조상의 발자취를 늘 감상할 수 있는 시립민속박물관, 그 주변에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자랑스러운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다. 공원 안에는 긴 세월동안 잘 가꾸어진 수목들이 가득하여 도심 속 공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춘 명품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원 근처에 거주하는 나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힐링 장소로 여기며 생활 속의 한 공간으로 자주 찾는 곳이다. 그런데 많은 시민이 찾는 장소로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 관리자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원 내에 자동차 도로가 너무 산만하게 많다. 차량 통행 편의보다는 시민의 운동 공간으로 차도를 더욱 축소한다면 더욱 쾌적한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공원을 질주해 다니는 오토바이 배달, 일명 라이더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동 여가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disclaim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